

대법원,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는 노동자다”

13일,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 지위 최종 인정 ... “현대차, 논쟁 중단하고 원직복직, 즉각 교섭해야”

대법원이 자동차 판매 대리점 노동자는 노조법이 규정한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조 탈퇴를 거부한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노동자 아홉 명을 해고한 대리점 사측의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6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하면서, “자동차 대리점 영업 사원이 노동자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라고 밝혔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법원이 노동자성 인정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적법한 노조 활동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노동조합 탄압은 대리점 기획 폐업으로 이어져 여덟 곳의 대리점이 폐업하고, 1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은 1년이 됐는데 손을 놓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판매연대지회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현대차그룹에 ▲지난 20여 년에 걸친 대리점 노동자 착취에 대한 사



과 ▲기본급과 4대 보험 지급 ▲즉각 직접 고용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 ▲현대차그룹의 노조 탄압·부당노동행위 신속 수사과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대법원판결, 노조 할 권리 재판 기준 될 것

금속노조 법률원 정준영 변호사는 “1심과 2심에 이어 자동차 판매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판결은 노조 할 권리를 다투는 재판의 기준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앞으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을 향해 “현대차 자본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판매대리점 노

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결과해지의 자세로 성실하게 교섭에 나오라” 라고 촉구했다.

2016년 노조 탈퇴를 거부하다 해고된 현대차 전주 금암대리점 이재운 조합원(현 자동차판매연대전북지회장)과 김선영 판매연대지회장은 “대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

다. 현대차그룹은 즉각 금암대리점 조합원 아홉 명을 원직복직 시켜라” 라고 촉구했다.

2015년 8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노조를 결성했다. 현대차그룹은 대리점 소장들을 앞세워 조합원을 찾아내 해고하고 기획폐업을 서슴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소장들에게 해고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시정명령 했다. 현대차그룹의 지휘를 받은 대리점 소장들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이어 2019년 6월 13일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카마스터(자동차 판매원)는 노조법상 노동자이며 이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 라고 최종 판결했다.

“노조가입 이유 해고·청산, 악덕 사용주 강력 처벌”

고용 참사·노조과과정리해고·기획폐업 분쇄 결의대회 ... “자본 독주 막지 않으면 등 돌릴 수밖에”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노동자가 노조가입 했다는 이유로 폐업하고 일자리에서 내쫓는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6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고용 참사·노조과과·정리해고·기획폐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노조 서울지부 성진씨에스분회, 신영프레스전분회, 레이테크분회 등 세 개 투쟁사업장 조합원과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업주의 노조 탄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이 반도 남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길거리에 내몰려 문제를 해결하라고 집회를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하청, 여성 노동자의 외침과 요구를 외면하고 악덕 사업주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자본의 독주를 막지 않으면 결국 노동자는 정권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희태 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신영프레스전분회장은 투쟁사에서 “대기업 LG의 하청노동자들이 노조과과를 막아내고, 법률 싸움에서도 이겼다. 자본은 청산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했



다”라며 “신영프레스전 사업주는 회사의 이익잉여금 700억 원과 골프장을 갖고 유유자적하면서 노동자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 없애려 회사 청산 하나?

이희태 분회장은 “정권과 자본이 ‘너는 노조를 해도 되고, 너는 노조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큰 사업장이든 작은 사업장이든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 민주주의는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성진씨에스분회, 신영프레스전분회, 레이테크분회 모두 사업주의 해고, 폐업, 청산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공통점이 있다. 세 분회는 청와대, 노동청,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 등 공동투쟁을 벌였다. 성진씨에스분회는 코오롱을 통해 현대·기아차에 자동차 시트 재료를 납품하고, 신영프레스전 분회는 LG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재벌사의 하청노동자다.

김선영 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현대·기아차 원청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대리점만 찍어 관례인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폐업시키고 있다. 노조과과를 위해 벌인 적극적인 공작의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김지회장은 “노동부와 검찰이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막

지 않고, 현대차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6월 13일 대법원이 자동차 대리점 판매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결정하는 판결을 한다. 설사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해도 현대차는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현대차 자본이 대법원판결도 무시하면, 우리는 법을 뛰어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광화문 일자리위원회를 지나 서울노동청으로 행진했다. 노조는 한국사회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인 여성,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판하고, 일자리위원회가 노조과과용 폐업·청산철회 해결방안 수립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종로를 행진해 서울고용노동청에 도착한 뒤 ‘위장폐업, 청산철회’ 등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대회를 마무리했다.